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7월 29일

**중국의 농민공 실태 조사와
농민공 부족의 주요 원인**

문의처: KIEP 북경사무소(hj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 2006년 중국 연해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농민공(農民工) 부족 현상(구인난)은 2008년 금융위기로 주춤하다 2009년 하반기부터 재현되었음. 2010년 들어서 호전되긴 하였지만 현재 농민공 부족은 과거와 달리 연해지역 뿐만 아니라 내륙성(省)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국가통계국은 농민공 통계 모니터 조사제도를 구축하여 전국 31개 성(구, 도시) 6만 8,000개 농촌세대와 약 7,100개 행정촌의 농민공을 대상으로 모니터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09년 전국의 농민공 수는 2억 2,978만 명을 기록함.
 - 중·서부지역의 기초 인프라 건설 등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서부지역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이 증가한 반면, 창장삼각주와 주장삼각주 등 동부 연해지역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은 감소함.
 - 타지 진출 농민공은 청년층의 기혼남성이 대다수이며, 중졸 출신이 64.8%를 차지함.
 - 타지 진출 농민공의 월 평균소득은 1,417위안이며, 노동계약서를 체결한 농민공의 비중은 42.8%였고, 사회보험 가입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음.
- 농민공 부족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임금, 신세대 농민공의 직업관 변화, 국가의 정책,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신세대 농민공은 임금보다는 근무환경, 자기개발 가능성 등을 중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산업정책 조정, 지역발전 전략 실시, 해농정책 강화 등으로 농민공 부족이 심각함.
- 농민공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 생산성을 높여 농업종사 노동력을 비농업으로 전환시키고, 합리적인 화폐 및 재정정책과 산업정책의 실시, 새로운 비교우위 모색 등이 제시되고 있음.

1. 농민공 부족현상의 재현

- 2006년 중국 연해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농민공(農民工)¹⁾ 부족 현상(구인난)은 2008년 금융위기로 주춤하다 2009년 하반기부터 재현되었음.
- 2010년 이후 상황이 조금 호전되긴 하였지만 이번 농민공 부족 현상은 과거와 달리 연해지역 뿐만 아니라 내륙성(省)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구인난은 광둥(广东), 푸젠(福建), 저장(浙江) 등 농민공 취업자가 많은 지역뿐 아니라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후난(湖南) 등 대표적인 농민공 배출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안후이, 장시 등 내륙지역은 최근 연해지역으로부터 제조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이전해오면서 구인난 현상이 발생하였음.
 -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의 많은 기업은 임금을 상향조정하고 연령, 학력, 성별 등 근로자 채용 조건을 완화해오고 있음.

2. 국가통계국의 농민공 실태 조사

가. 조사의 대상과 방법

- 중국 국가통계국 농촌사(国家统计局农村司)는 지난 3월 19일 “2009년 농민공 조사보고서(2009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를 발표함.
 - 국가통계국은 농민공 수, 이동 방향, 취업, 거주, 사회보장 등 실태를 전면적이고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농민공 통계 모니터조사제도를 구축하였음(2008년 말).
- 보고서에서는 전국 31개 성시의 6만 8,000개 농촌세대와 7,100개 행정촌의 농민공을 대상으로 모니터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농민공은 ① 타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타지 진출 농민공과 ② 본지(本地)에서 6개월 이상 비농업에 종사한 본지의 농민공임.

1)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출신의 노동자로, 중국 특유의 도농이원체제가 낳은 특수한 사회집단임.

나. 농민공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²⁾

- 2009년도 전국의 총 농민공 수³⁾는 2억 2,978만 명으로 1.9% 증가(436만 명)하였음.
- 타지로 나가 근무하는 농민공이 증가한 반면 본지(本地)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은 감소함.
 - 타지로 나가 근무하는 농민공은 1억 4,533만 명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고, 본지의 향진(乡镇)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농민공 8,445만 명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함.

표 1. 농민공 전체 규모

(단위: 만 명, %)

구분	2009년	2008년	증감	증감률
총 농민공	22,978	22,542	436	1.9
1. 타지진출 농민공	14,533	14,041	492	3.5
(1) 가족 중 타지 진출 농민공	11,567	11,182	385	3.4
(2) 전 가족 타지 진출 농민공	2,966	2,859	107	3.7
2. 본지 농민공	8,445	8,501	-56	-0.7

자료: 『国家统计局农村司』(2010. 3. 19), 『2009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

- 타지 진출 농민공은 주로 동부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민공 수도 현저히 증가하였음.
 - 2009년 타지 진출 농민공 중 동부지역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은 9,076만 명으로 전년대비 8.9%(888만 명)감소함. 전체 타지 진출 농민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5%임(8.5%포인트 하락).
 - 반면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은 각각 2,477만, 2,940만 명으로 전년대비 33.2%(618만 명), 35.8%(775만 명) 증가함.
- 전체 타지진출 농민공 중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비중은 각각 17%(3.8%포인트 상승)와 20.2%(4.8%p 증가)를 차지함.

2) △ 동부(东部)지역-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저장, 푸젠, 산둥(山东), 광둥, 하이난(海南) △ 중부(中部)지역-산시(山西), 지린(吉林), 헤룽장(黑龙江), 안후이, 장시,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 △ 서부(西部)지역-내이멍구(内蒙古), 광시(广西), 충칭(重庆), 쓰촨(四川), 꾸이저우(贵州), 윈난(云南), 시장(西藏), 산시(陕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닝시아(宁夏), 신장(新疆).

3) ① 타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타지 진출 농민공과 ② 본지에서 6개월 이상 비농업에 종사한 본지의 농민공을 말함.

그림 1. 농민공의 지역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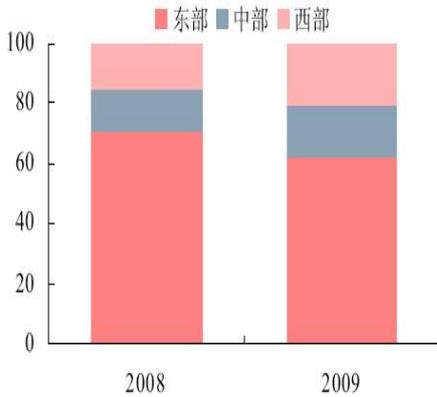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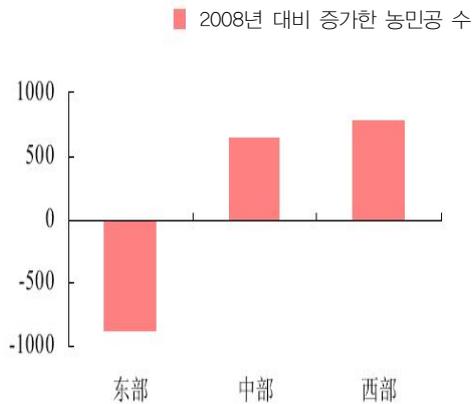


그림 2. 2008년 대비 지역별 증감

(단위: 만 명)



자료: 『중신(中信)증권』(2010. 4. 13), 「동서부 노동력 쟁탈 진행(东西部劳动力争夺进行时)」.

- 창장삼각주지역과 주장삼각주지역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이 감소하였으며, 농민공 부족이 가장 두드러진 산업은 주장삼각주와 민동남지역의 가공무역 수출업이었음.
- 2009년 창장삼각주와 주장삼각주지역에서 근무하는 타지 진출 농민공은 각각 2,816만 명과 3,282만 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7.8%(238만 명), 22.5%(954만 명)감소함.
- 창장삼각주와 주장삼각주에서 근무하는 타지 농민공은 전국 타지 진출 농민공 중 각각 19.4%와 22.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각각 2.4%포인트와 7.6%포인트 하락함.
- 성 내(省内)에서 근무하는 타지 진출 농민공이 증가한 반면 성 외(省外)로 진출한 농민공은 감소함.
- 2009년 타지 진출 농민공이 증가하였지만 주로 성 내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주한 농민공이 대폭 증가함. 지역적으로 동부지역 농민공은 여전히 성 내에서 근무하며 중·서부지역 농민공 대다수는 성 외에서 근무함.
- 그러나 중·서부지역 농민공이 성 내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비율도 뚜렷이 증가하였음.
- 타지 진출 농민공 중 성 외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은 7,441만 명으로 51.2%를 차지, 성 내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은 7,092만 명으로 48.8%를 차지함.
- 성 외에서 근무한 농민공은 전년대비 0.6%(43만 명) 감소한 반면, 성 내에서 근무한 농민공은 전년대비 2.1%포인트 상승한 8.2%(535만 명) 증가함.

표 2. 성 내, 성 외에서 근무하는 타지 진출 농민공

(단위: %)

지역	2009년		2008년	
	성 내	성 외	성 내	성 외
동부지역	79.6	20.4	79.7	20.3
중부지역	30.6	69.4	29.0	71.0
서부지역	40.9	59.1	37.0	63.0

자료: 『国家统计局农村司』(2010. 3. 19), 『2009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

다. 타지 진출 농민공의 특징

■ 타지 진출 농민공은 청년 남성 위주로 대다수가 기혼자임.

- 타지 진출 농민공 중 65.1%가 남성, 주로 청·장년층으로 16~25세 41.6%, 26~30세 22.3%, 40~50세 11.9%, 50세 이상이 4.2%이며, 기혼·미혼·기타가 각각 56%, 41.5%, 2.5%를 차지함.

■ 타지 진출 농민공의 교육수준은 대부분은 중졸이지만, 고등학교 및 그 이상 교육수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타지 진출 농민공 중 1.1%가 문맹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수준이 각각 10.6%, 64.8%, 13.1%이며 중등전문학교 및 그 이상의 교육수준이 10.4%를 차지함.
- 고등학교 및 그 이상의 교육수준 비중이 전년대비 1.7%포인트 증가함(23.5%).
- 연령층이 낮을수록 고학력의 특징을 나타냄. 즉 30세 이하의 각 연령층 중·고등학교 및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아본 비율이 평균 26% 이상이며, 그 중 21~25세 중·고등학교 및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아본 비율이 31.1%에 달함.

■ 제조업, 건축업,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대다수이며, 제조업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 타지 진출 농민공 중 약 39.1%가 제조업에 종사하여 그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건축업이 17.3%, 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도소매가 각각 11.8%, 7.8%, 7.8%, 교통운수·창고·우편업이 5.9%를 차지함.
- 제조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은 전년대비 2.6%포인트 하락한 반면 그 외 업종은 모두 상승함.

■ 타지 진출 농민공의 대다수인 93.6%가 임금근로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6.4%만이 자영업에 종사함.

- 동부, 중부, 서부지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농민공 비율 각각 5.6%, 7.9%, 8.6%임.

라. 타지 진출 농민공의 소득 및 주거현황

■ 타지 진출 농민공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1,389위안과 1,837위안으로 현저한 소득격차가 존재함.

- 2009년 타지 진출 농민공의 월평균 소득 1,417위안으로 전년대비 5.7%(77위안) 증가함.

○ 타지 진출 농민공의 월평균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600위안 이하는 2.1%, 600~800위안 5.2%, 800~1,200위안 19.7%, 1,200~1,600위안 33.9%, 1,600~2,400위안 19.7%, 2,400위안 이상 7.6%임.

■ 대·중 도시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서부지역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지역별 농민공의 월평균 소득은 동부 1,422위안, 중부 1,350위안, 서부 1,378위안임.

표 3. 지역별 농민공의 월 평균 소득액과 증가율

(단위: 위안, %)

지역	2009년	2008년	증가액	증가율
전 국	1,417	1,340	77	5.7
동부지역	1,422	1,352	70	5.2
중부지역	1,350	1,275	75	5.9
서부지역	1,378	1,273	105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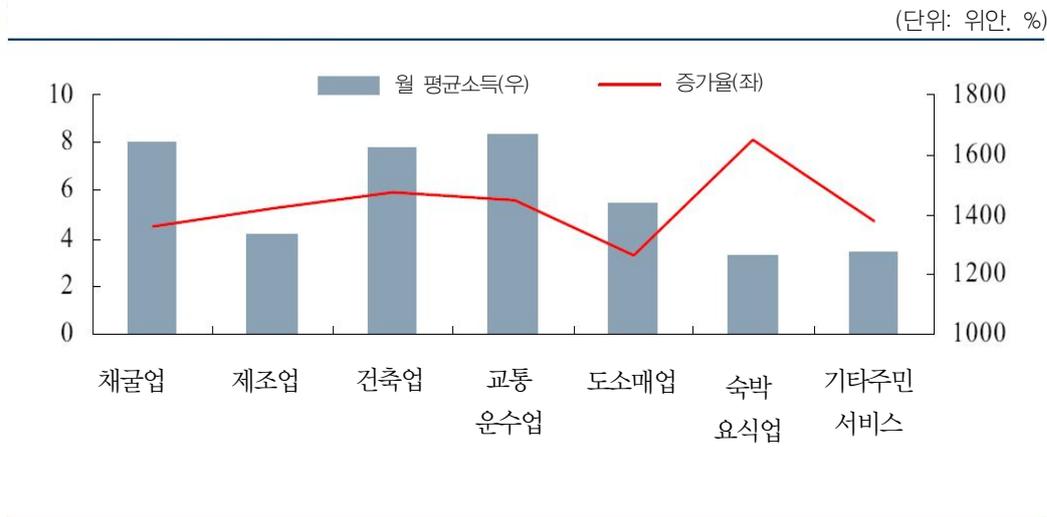
자료: 『国家统计局农村司』(2010. 3. 19), 『2009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

■ 업종별 소득수준 차이가 비교적 크며, 농민공 소득증가폭은 전국 평균수준 보다 낮음.

- 농민공이 종사하는 주요 업종 중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업종은 교통운수업, 채굴업, 건축업으로 월평균 소득은 각각 1,670위안, 1,640위안, 1,625위안이며,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업종은 숙박요식업, 서비스업, 제조업으로 각각 1,264위안, 1,276위안, 1,331위안임.

- 숙박요식업과 건축업의 소득증가율이 각각 8.1%, 5.9%로 비교적 높음. 그러나 2009년 도시주민 소득증가율 약 10%와 비교하면 농민공의 소득증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그림 3. 업종별 월 평균소득 수준과 증가율



자료: 『中信証券』(2010. 4. 13), 『东西部劳动力争夺进行时』.

- 타지 진출 농민공의 주거는 대부분 고용주 또는 회사가 제공, 그러나 40%의 농민공은 고용주 또는 회사로부터 숙소는 물론 주택보조금도 제공받지 못함.
- 고용주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거주가 33.9%, 공사현장 또는 공사현장 가건물 거주 10.3%, 생산경영지 거주 7.6%, 2명 이상이 함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비중이 17.5%, 단독 주택임대 거주 17.1%, 9.3%가 집에서 가까운 향진 이외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0.8%의 농민공만이 근무지에서 개인 주택을 구매하여 거주함.
- 농민공의 50.5%가 고용주 또는 회사로부터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받으며 7.4%의 농민공이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대신 주택보조금을 받으나, 42.1%의 농민공은 숙소는 물론 주택보조금 또한 제공받지 못함. 이들은 주거비용으로 매월 평균 245위안을 지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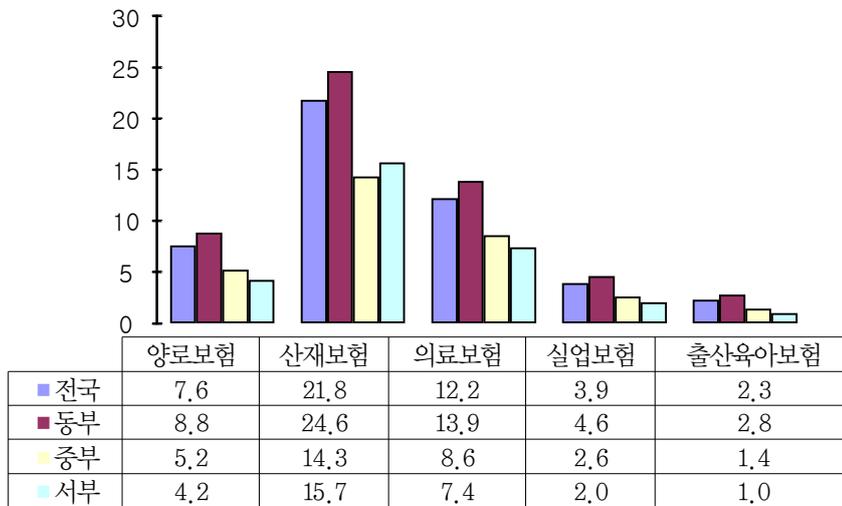
마. 타지 진출 농민공의 권리보장 현황

- 임금체불 현상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건축업과 제조업에 임금체불 현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비교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각급 정부는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를 매우 중시하여 관련 정책을 제정·실시, 2009년 타지 진출 농민공 중 임금근로자가 고용주 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약 1.8%로 전년대비 4.1%포인트 하락함.

- 타지 진출 농민공 중 임금근로자는 매월 평균 26일 근무하며 매주 56.4시간을 근무, 노동법에서 규정한 44시간을 초과함.
- 농민공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의 평균 작업 시간은 제조업 58.2시간, 건축업 59.4시간, 서비스업 58.5시간, 숙박요식은 61.3시간, 도소매업 59.6시간임.
- 농민공의 노동계약서 체결 비율이 낮고, 약 60%의 농민공이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음.
- 2009년 타지 진출 농민공 중 임금근로자의 42.8%만 고용주 또는 회사와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였음.
- 업종별로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농민공 중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비율이 7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서비스업, 숙박요식업, 도소매업은 각각 49.3%, 63.9%, 65.2%, 66%를 차지함.

그림 4. 농민공 사회보장 가입 비율 - 지역별

(단위: %)



자료: 『国家统计局农村司』(2010. 3. 19), 『2009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

4. 농민공의 사회보장제도 가입 비율(업종별)

(단위: %)

업종	양로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출산육아보험
제조업	8.8	27.5	14.7	4.2	2.4
건축업	1.8	15.6	4.4	1.0	0.6
교통운송·창고·우편업	10.7	27.2	15.4	6.1	3.5
도소매업	6.1	11.6	8.3	3.1	1.8
숙박요식업	3.6	11.7	7.1	1.7	0.8
주민서비스·기타서비스업	4.8	14.2	9.4	2.7	1.6

자료: 『国家统计局农村司』(2010. 3. 19), 『2009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

- 타지 진출 농민공의 사회보험 가입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으며 중·서부 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음(그림 4, 표 4 참고).
- 고용주 또는 회사가 농민공을 위해 가입한 양로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출산육아보험(生育保險, maternity insurance)은 각각 7.6%, 21.8%, 12.2%, 3.9%, 2.3%임.
- 업종별 사회보장 가입률은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상해위험이 비교적 높은 건축업의 산재보험 납부비율은 15.6%로 산재보험조례(工傷保險條例)의 요구사항에 미달됨.

3. 농민공 부족의 주요 원인

가. 낮은 임금

-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 더 이상 농민공을 흡수하지 못함.
- 광둥성 정부 발전연구센터 거시처 처장 탄빙차이(譚炳才)는 ‘표면적으로는 경제회복으로 주문이 증가하여 구인난이 발생한 듯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노동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 때문에 더 이상 농민공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힘.
- 중산(中山)대학의 홍콩-마카오-주장삼각주 연구센터 부주임 린장(林江) 교수에 의하면, 20년 전의 월급 800위안이나 1,000위안은 확실히 큰 인센티브였지만 현재 대다수 기업의 농민공 소득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이성적인 선택임.

나. 국가의 정책

- 국가의 산업정책 조정, 지역발전 전략규획 실시, 혜농(惠农)정책 강화 등으로 동부 연해지역의 농민공 부족현상이 발생
- 과거에는 연해지역에서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나 중·서부 지역의 빠른 발전으로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고 동부 연해지역과의 경제 격차가 줄어들면서 동부 연해지역의 노동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됨.
- 최근 내륙지역의 기초인프라 건설과 연해지역 기업의 내륙 이전 정책 등으로 농민공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어 중·서부 지역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이 증가한 반면 창장삼각주와

주장삼각주 등 동부 연해지역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은 감소(그림 1, 2 참고)

- 최근 통계 수치에 의하면 현재 중·서부 지역의 대표적 농민공 배출지역인 허난, 후난, 쓰촨, 후베이, 안후이 5개 성은 GDP가 1조 위안을 넘어섬. 2009년 GDP 1조 위안을 넘어선 안후이는 2009년 공업화율이 전년대비 29.3%에서 45%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배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 중·서부 지역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여 현재 중·서부 지역과 동부지역의 임금격차는 10% 정도이지만, 동부지역에서 근무 시 생활비가 중·서부 지역에 비해 약 25% 높아 농민공이 연해지역을 떠나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함(표 3 참고).
- 농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증가, 농산물 매수가격 상향조정 등의 혜농정책으로 농업수익이 과거보다 상승하면서 일부 농민공은 귀향하여 농사와 농산물 가공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다. 노동연령인구의 감소

■ 중국 인구 이익효과가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Lewisian turning point)⁴⁾에 접근, 노동 연령인구 감소함.

- 중국 국제금융유한회사 수석경제학자 하지밍(哈继铭)은 중국의 인구 이익효과가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에 근접하여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보이고 있는 구인난 현상이 향후 전국적인 현상으로 변할 것이라고 함.

-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소장 차이팡(蔡昉)은 2000~2010년 중국의 노동연령인구는 1% 증가하였고, 현재 중국은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에 접근 중이라고 밝힘. 또한 2015년 노동 연령인구가 최고치에 달하고 그 후 노동연령인구 비율이 해마다 하락할 것이라고 함⁵⁾.

- 또한 차이팡은 저출산으로 이미 도시 초등학교의 입학이 줄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노동연령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함.

■ 그러나 런민(人民)대학 인구발전연구센터 허우동민(侯东民) 교수는 구인난의 가장 근본

4)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더 루이스의 이름을 딴 개도국 경제발전단계이론으로,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진출하면서 제조업이 저임금 인력으로 발전을 지속하다 더 이상 값싼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임금도 오르고 고성장도 둔화하는 현상을 말함.

5) 일부에서는 △ 국가 법정 퇴직연령보다 낮은 중국의 명예퇴직 제도 △ 농민공 초과근무의 정상화 및 기업의 생산효율 추구 △ 급격히 상승한 대학생 수에 비해 이에 걸맞는 일자리 부족 등 세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중국 인구 이익효과가 이미 감퇴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적인 원인은 현재 도시 기업의 근로자 고용 방식에 있다고 함.

- 즉 현재 대량의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지만 도농 40~50대 연령층의 노동력 고용을 포기(농민공의 연령은 더욱 낮음)하는 기업의 고용방식이 노동자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함.

라. 신세대 농민공의 의식 변화

- 1980~90년대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이 전체 농민공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구세대 농민공과 다른 직업관을 가지고 있음.
- 신세대 농민공은 더욱 명확한 권리의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금 상승보다는 근무환경, 자기개발 가능성 등을 중시하는 것이 과거 농민공들과 다른 점임.
- 광저우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구세대 농민공의 80~90%가 소득을 집으로 보내는 반면, 신세대 농민공의 65~70%가 자신을 위해 소비한다고 함.
- 신세대 농민공은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도시에 융화되어 살기를 희망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농 이원화체제로 인해 제1세대 농민공들처럼 양로, 주택, 자녀 교육,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함.

4. 농민공 부족 개선을 위한 제안

- 노동생산성을 높여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력을 비농업으로 전환함.
- 농촌의 토지 유통 강화, 규모종식 실현, 농업에 대한 정부 투자 및 농업보조금과 기술 응용 확대 등 제도상의 개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킴.
- 현재 중국 농업의 노동생산률은 미국, 일본, 한국보다 낮은 상태로, 단위농촌노동력(单位农村劳动力)의 식량생산이 한국의 절반, 일본의 1/4에도 미치지 못함.
- 만약 노동생산률이 한국과 일본의 수준에 이른다면 각각 1.7억 명, 2.3억 명의 잉여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함.
- 합리적인 화폐 및 재정정책과 산업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함.

- 노동비용 상승은 중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므로 정부는 합리적인 화폐정책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정책면에서도 민간자본투자 개방과 독점타파를 통해 기업의 효율을 높여야 함.
- 또한 재정 측면에서 연구개발 투자와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조세우대정책을 통해 기술진보와 혁신을 장려하여 노동 생산율을 향상시켜 원가부담을 해소해야 함.
- 차이팡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력의 무한공급은 중국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명확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우위를 점차 잃어가고 있으므로, 중국은 새로운 경쟁우위를 모색하여야 한다’ 고 언급함. **KIEP**

■ 참고자료 ■

『国家统计局农村司』. 2010. 「2009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 (2010.3.19)
 『金融时报』. 2010. 「民工荒的原因和启示」. (2010.4.12)
 『羊城晚报』. 2010. 「民工荒汹涌来袭 中国经济面临四重变局」. (2010.2.24)
 『第一财经日报』. 2010a. 「民工荒并不预示着劳动力短缺」. (2010.3.2)
 ——. 2010b. 「消失”的农民工」. (2010.3.2)
 『中金公司』. 2010. 「民工荒问题探究民工荒的原因和启示」. (2010.3.15)
 『中信证券』. 2010. 「东西部劳动力争夺进行时」. (2010.4.13)
 『中国经济时报』. 2010. 「民工荒”倒逼失衡劳资关系调整」. (2010.3.2)
 『中国经营报』. 2010. 「民工荒预示中国人口红利即将结束」. (2010.3.20)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 신금미 (nhsinny@hotmail.com)